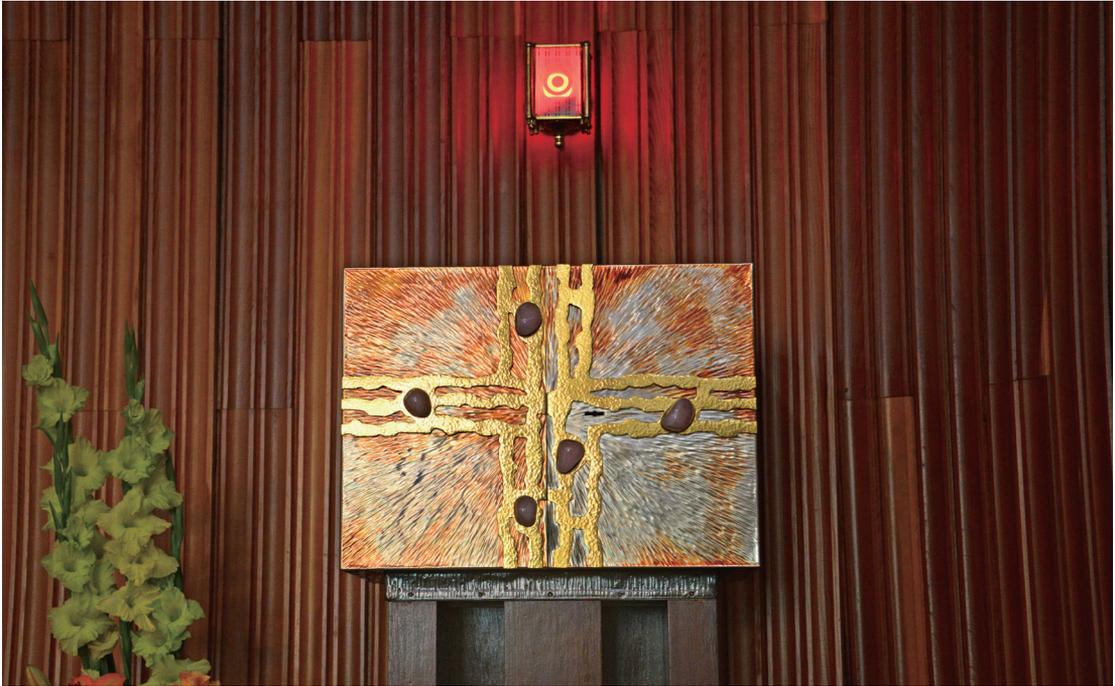


대구주보

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연중 제21주일 2016.8.21.(다해) 제2013호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_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 _ <http://www.daegu.jubo.or.kr>



동인성당 감실 (사진 : 대구대교구 가톨릭사진가회)

† 오늘의 전례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루카 13,24)

십자가는 구원에 이르는 좁은 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새로운 생명의 파스카 잔치로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힘을 주시어 아드님의 십자가상 제사에 결합시키시고, 하늘 나라의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제1독서 이사 66,18-21 **제2독서** 히브 12,5-7,11-13 **복음** 루카 13,22-30.

입당송 주님, 귀를 기울이소서. 제게 응답하소서. 당신 종을 구해 주소서.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을 신뢰하나이다. 당신께 온종일 부르짖사오니,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화답송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영성체송 주님,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 흥겹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



답례 살겠습니다 금주의 실천 사항(평신도위원회 제공)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안병권 요한 신부 | 중리본당 주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문제나 잘못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이들의 문제를 들추거나 다른 이들의 잘못과 실수를 부각시킬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은 자기에게 문제가 많을수록 다른 이들의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인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너무 쉽게 이야기하거나 평가를 하고 더 나아가 비판이나 비난을 하는 이들을 보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는 바로 그 사람을 유심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왜 그래야만 하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무심하게 혹은 날카롭게 하는 말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처음에는 처세술로 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 진실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다른 이들뿐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 우리는 단혀 버린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들은 간절히 “주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그러한 이들의 말에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주인을 향해 그들은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라고 말하며 주인과 자신들의 관계를 들먹입니다. 사실 이는 우리들이 흔히 선

호하는 삶의 성향, “좋은 것이 좋은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문이 열리기를 바라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들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말이나 행동, 나아가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지금 문만 열리기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능구렁이처럼 넘어가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자신들이 주님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향해 침을 뱉고 모욕을 퍼부었다는 것도 완전히 감추고 있습니다. 나아가 “죽여라!”라고 고함을 질렀다는 것까지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삶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주님께로 가는 문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열릴 문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죄를 짓고 잘못을 하였다 고 하여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참된 회개를 통해 인간적으로는 초심으로 나아가고 신앙으로는 주님께 돌아갈 수 있을 때, 우리에게 그 문은 분명 열릴 것입니다. **▶**

학교 밖 아이들

교육은 '성공'이 아니라 '행복'

임석환 스테파노 신부 | 대안교육담당

우리 학교 '꿈 못자리'에는 매일 아침 밥 대신 약을 먹고 등교를 하는 주희(가명)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오전에는 늘 생글생글 웃음이 가득하다가 점심 때 즈음 시무룩해지고 오후에 들어서면 점점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아무에게나 시비를 걸고 욕을 한바탕 하고서는 곧바로 '나는 세상에서 없어져버려야 하는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자학에 가까운 자책을 하며 도망가 버리곤 합니다. 약효가 생기면 행복하고 약효가 다 되면 불행해지는 만화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최근에는 약을 먹지 않고도 행복해질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마법에서 풀려나는 듯 주문과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아이 때문에 늘 곁에서 힘들어하던 친구들이 들려주는, "주희야, 너는 절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해!"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교사들이 이와 비슷한 말을 했을 때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는데, 역시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게는 꼭 왕자가 필요한 모양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행복할 줄을 모릅니다. 많은 학교 부적응 학생들은 학교의 선생님이나 교실에 함께 있는 친구들이 모두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성공만을 가르치는 학교가 만들어 낸 우울한 자화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은 선생님으로부터, 함께 있는 친구들로부터 행복을 찾지 못할까요? 언제 올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게 만드는 교육이 과연 아직까지도 유효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고기 맛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던 아이의 미래는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부모에게서, 선생님에게서 행복을 배우지 못했는데 과연 어디에서 행복을 배울 수 있을까요?

내가 행복하면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행복하면 사회가 행복합니다. '꿈 못자리'에서 우리 교사들이 행복해하니 아이들도 덩달아 행복해합니다. 교육은 아이들이 행복할 줄 알도록 배워나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김민**

학교 밖 청소년·학교 부적응 학생 관련

문의: 가톨릭청소년대안교육센터,

053)643-7624

후원: 대구은행, 505-10-178097-9

(재)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꿈못자리)



튀김요리

우리가 흔히 간식으로 즐기는 친숙한 먹거리 중의 하나로, 술안주나 밥반찬으로도 인기 있는 튀김요리. 튀김에 쓰이는 재료는 새우, 오징어 등 해산물에서부터 고추, 감자, 고구마 등 야채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흔히 ‘텐푸라’라는 일본식 이름에 더 익숙할 겁니다. 텐푸라는 일본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텐푸라’라는 말은 원래 라틴어 ‘콰토르 템포라(quatuor tempora)’에서 유래했습니다. 사계절이란 뜻으로, 음식과는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금육을 지키던 가톨릭교회 문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570년 일본이 나가사키항을 서양에 개방하면서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포르투갈인과 네덜란드인이었습니다. 특히 이 무렵에 들어온 예수회 소속 포르투갈 선교사들은 선교활동 중에도 금육을 지키기 위해 고기 대신 새우나 생선을 튀겨먹고는 했습니다.

에도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에서는 튀김요리가 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음식을 기름에 튀기는 기술도 발달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튀김에 쓰는 기름이 비싼 참기름이었기 때문에 극히 소수의 상류층만 튀김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기름으로 새우와 같은 어류를 튀겨 먹는 것을 보자 일본 사람들은 신기하게 여겨 무슨 음식이냐고 물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사계의 재(齋)’, 즉 ‘콰토르 템포라(Quatuor Tempora)’에 대해 설명해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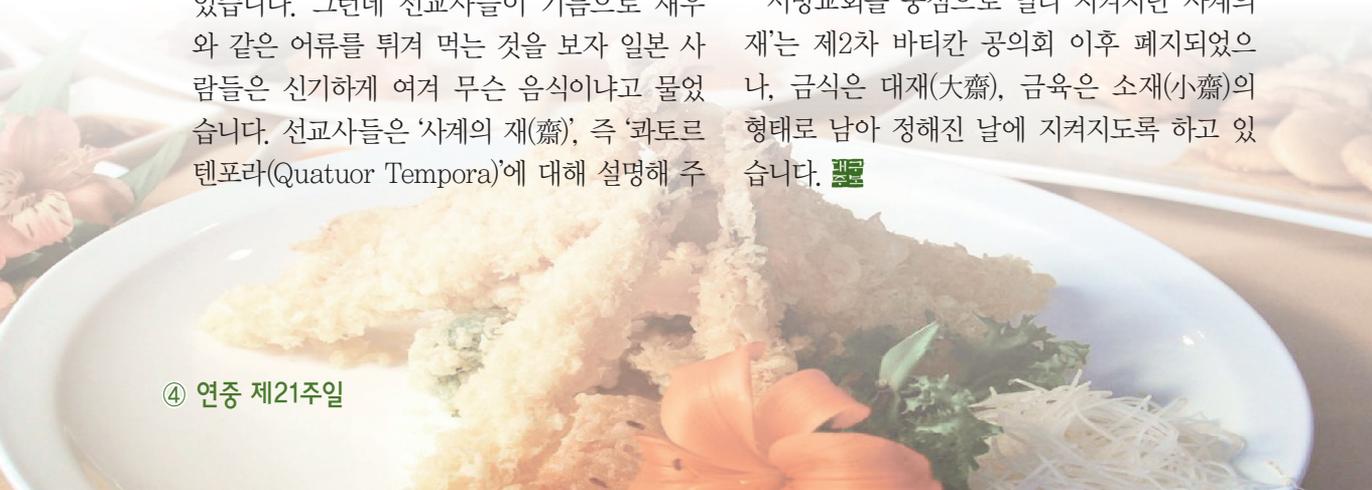
면서 이 기간 동안에는 고기 대신 생선이나 새우를 튀겨 먹는다고 했습니다.

‘사계의 재’는 매 계절이 시작될 때마다 각각 3일씩 속죄하는 마음으로 금식과 금육을 지키며 기도하던 때를 말합니다. 겨울에는 대림제3주간, 봄에는 사순 제1주간, 여름에는 성령 강림 대축일, 가을에는 십자가 현양 축일(9월 14일)을 전후로 지켜졌는데 중세 시대에는 이 날 평소보다 더 많이 봉헌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죽은 이들을 추모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선교사가 말하는 ‘콰토르 템포라’ 중에서 핵심 단어가 ‘템포라’라고 생각하고, 이 말을 새우나 야채를 튀길 때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텐푸라’가 되었습니다.

에도막부시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사망원인이 고령에 도미튀김을 너무 많이 먹은 것이 위장 장애를 일으켰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텐푸라는 일본 최고 권력자의 입에도 꽤나 인기 있는 음식으로 입맛을 끌었나 봅니다. 이후 텐푸라는 일본 상류층의 입맛을 사로잡아 고급 음식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1700년대 후반부터는 길거리에서 먹을 정도로 널리 퍼졌습니다.

서방교회를 중심으로 널리 지켜지던 ‘사계의 재’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폐지되었으나, 금식은 대재(大齋), 금육은 소재(小齋)의 형태로 남아 정해진 날에 지켜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문**



햇볕 한 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연주

지난 2013년 영국의 한 경매장에서 바이올린 한 대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장내가 숙연해집니다. 백여 년 전 명품 브랜드의 모조품으로 만들어진 이 바이올린은 현마저 두 줄밖에 남아 있지 않았습니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올린은 무려 90만 파운드, 우리 돈 약 15억 4천여 만 원에 낙찰되었지만 아무도 놀라워하지 않았습니니다. 바로 이 바이올린에 담긴 특별한 사연 때문이었습니다.



영화 「타이타닉」 중에서

1912년 4월 15일 북대서양을 건너던 타이타닉호는 암초에 부딪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갑판에 바닷물이 차오르자 승객들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모두들 살기 위해 몸부림치던 그 때, 의연하게 연주를 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바이올린 연주가로 등장하는 '월리스 하틀리(Wallace Henry

Hartley)'는 타이타닉호의 악단을 이끈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하틀리가 이끄는 8명의 연주자들은 이성을 잃은 승객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탈출을 포기하고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급박한 상황에서 울려 퍼진 아름다운 선율은 놀랍게도 흥분했던 승객들에게 침착함을 되찾게 했습니다. 연주는 침몰하기 10분 전까지 3시간가량 계속됐고 그 덕분에 승객들은 여자와 어린이부터 질서정연하게 구명보트에 태울 수 있었습니다. 구명보트가 부족해 탈출을 포기한 승객들은 연주를 들으며 차분히 생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마지막 연주를 이끈 이 바이올린은 월리스가 약혼녀로부터 선물 받은 소중한 바이올린이기도 합니다. 바이올린 가방에는 월리스 이름의 'W. H. H'라는 이니셜이 적혀있었고 몸체에는 '우리의 약혼을 기념하며, 월리스에게'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승객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연주하다 죽음을 맞이한 월리스는 타이타닉호 침몰 1주일 후 주변 해상에서 발견됐습니다. 몸에는 바이올린 가방이 묶여 있었습니다. 이 바이올린은 약혼녀 마리아에게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이 바이올린을 평생 소중히 간직하며 혼자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바다에서 침몰 10분 전까지 울려 퍼진 연주는 수많은 생명을 구한 가장 위대한 연주로 후세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

교구 행사

■ 나가이 타카시의 생애 출판기념회



사진제공 : 월간 <빛>

(사)한국여기회와 앞산밀북카페가 주최한 『나카이 타카시의 생애』 출판기념회가 8월 14일(일) 오후 2시 앞산밀북카페에서 열렸다.

■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장신호(요한 보스코) 보좌주교는 8월 15일(월) 오전 11시 주교좌 계산성당에서 성모승천대축일 미사를 봉헌하였다.

■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및 선교사제 파견예식



사진제공 : 월간 <빛>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는 8월 15일(월) 오전 10시 30분 주교좌 범어대성당에서 성모승천대축일 미사를 봉헌하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교구로 선교를 떠나는 심탁(클레멘스) 신부의 파견 예식을 거행하였다.

사이버 신종교와 이단에 주의하십시오!

- 근래 들어 성모당과 각 본당에 **신천지** 신자들이 출몰하여 신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신자여러분들께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회에서 금하는 **나주 울리아** 관련 모임에 참여하거나, 관련 장소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어쨌든 일등?

박성규 엘리시오



미사안내

2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8월 22일(월) 10:30 범어성당	한국의외방선교회 후원회미사	8월 23일(화) 14:00 신암성당
구미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8월 22일(월) 11:00 도량성당		8월 23일(화) 19:30 다사성당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8월 22일(월) 11:00 계산성당		8월 24일(수) 10:00 죽도성당
오순절평화희마을 후원회미사	8월 22일(월) 11:00 수성성당		8월 24일(수) 14:00 토마스성당
김천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8월 24일(수) 10:00 평화성당	-	-

대리구 소식

2대리구 교구장 대리

박성대(요한) 신부 은퇴 감사 미사

일시: 8.24(수) 19:30

장소: 주교좌 범어대성당(프란치스코성당)
초청장은 따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화환과 예물은 기도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소 | 피정

첫토요일 성모신심 소피정

일시: 9.3(토) 10:00

내용: 영성특강(문봉한 신부)

찬양미사(안수), 고해성사

은행: 영남대역 앞 셔틀버스(9:30 출발)

문의: 진량성당, 856-7676

젊은이 하루 성경 통독 피정

일시: 8.27(토) 9:00~17:00

장소: 바틀로교육센터 / 마감: 8.25(목)

주제: 마르코복음 통독 / 피정비: 1만원

대상: 말씀을 갈망하는 젊은이

문의: (010)8852-9817

기도와 쉼 피정_소울 스테이

기간: 9.9(금)~11(일)

11.18(금)~20(일) 2박 3일

장소: 연화리피정의집

문의: (054)973-4835

(010)3542-4835

제주 성 이시돌 자연 피정

올레, 한라산, 미사, 기도, 강의

기간: 8.28~30 / 9.19~22 / 9.24~27

9.30~10.3 / 10.5~7 / 10.11~14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의: 성이시돌피정의집, (064)796-9181

천호성지_병인박해 150돌 기념 피정

기간: 9.2(금) 14:00~3(토)

주제: 신앙선조, 그들은 무엇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장사: 김진소 신부

(호남교회사 명예소장)

문의: (063)230-1004

교육 | 모집 | 기타

베네딕도 성경학교 심화과정 신입생 모집

성경에 깃든 깊은 뜻을 찾아

개강: 9.5(매주 월) 10:00, 19:30

장소: 베네딕도교육관(사수동)

대상: 성경 일반과정을 이수한 분

문의: 313-3050 / (010)7185-3431

말씀으로 마음 치유(독서치료)

일자: 9월부터(매주 금) / 무료

시간: 19:00~21:00(10주간)

장소: 남산동 성바오로서원

대상: 남, 녀(30대~50대 신자)

문의: 성바오로수도회, 256-4592

18차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신규교육 모집

기간: 9.29(목)~30(금)

대구은행 508-10-349316-9(장혜자)

입금선착순 30명 / 교육비: 3만원

문의: 대구파티마병원, 940-7515

940-7517(입금 후 전화)

대구가톨릭대병원 검진센터 이전 오픈

새롭게 단장한 종합검진센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검진실시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위치: 암센터·장기이식센터 5층

문의: 650-4114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재건축 후원자 모집

교회를 위한 저희의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재건축을 위해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청합니다.

대구은행: 504-10-137072-9

문의: (010)3375-4408

참소중한당신 정신과
PSYCHIATRY CLINIC

"소중한 당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보살펴 드립니다."
우울증/불안/불면증/정신의학적 상담

원장 정신과 전문의 차 상 훈(다니엘)
TEL. 053)752-2351
동구시장 삼거리, 수성도서관 맞은편

나비피부과
(여드름/기미/모공)

피부과 전문의 / 원장 김창욱(라파엘)

053.253.7582
동성로 롯데영플라자 맞은편

32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나노기술 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 253-7476
방 프란치스코
중앙대거리-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KC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홈케어 무료서비스
무료전화 080-053-1000
이옥수(아네스) 010-5048-7739

스피치 킴 김민지 가장 기쁜사람!

Speech, Kim 스피치킴

리더십 & 발표력 & 자신감

스피치킴의 특별한 전라를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프리젠테이션, 입사·취업 면접, 화술·화법
대상: 유치부~성인

스피치킴 교육 본원(대백 프라자 옆) T.053)421-0213
NAVER 스피치킴 김민지(사바나)

미소나리 출장부페

예식부페, 기업체행사
각종 야외행사, 성당행사, 장례부페
대표 양 애 향(마리아)

사회적기업 (주)서구힐푸드

문의전화 053)555-4843
http://www.미소나리.kr

2484 익스프레스

칠곡 313-2484
서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수성구 761-2484

반석기(메오르) 010-3514-3855

이상도 신경과

신경과 / 내과 / 정신건강의학과

이상도
(프란치스코)
대한 신경과 학회장 역임
대한 뇌진동 학회장 역임
대구 강북치매 연구회 회장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현대백화점 뒤
☎ 053)252-0418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8월 22일(월)은
(故) 이형문(안토니오) 신부
선종 3주기입니다.

행사 | 모임

바느의성모기도회 율레미사

가난한 이와 고통받는 이들에게
발현하신 성모님
일시: 8.25(목) 14:00 기도, 15:00 미사
장소: 삼덕성당

옥계성당 교육관·유치원 건립 기금마련 을 위한 황창익(비오) 신부 사진개인전

기간: 9.2(금)~30(금)
장소: 예담 갤러리(샬트르수녀원)
주제: 기억(La Memoria)
문의: 옥계성당, (010)8772-8731

고성성당 새성전기금마련 뮤지컬 공연

순종적인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뮤지컬
기간: 9.23(금)~25(일)
장소: 오페라하우스
제목: 서울할망 정난주
문의: 352-1412

교육 | 모집

교구 도보성지순례 모집

일시: 9.23(금) 19:00~24(토) 16:00
코스: 한티가는 길
(가실성당~한티성지, 42.7Km)

신청마감: 8.31(수) / 1인당 2만원
문의: 교구 사목국, 250-3057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트리 모집

대상: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검정고시지원, 진로탐색
위치: 지하철 1호선 교대역 3번 출구
문의: 대구가톨릭청소년대안교육센터
(010)9177-6858 / cumtree@daum.net

성지안내봉사 교육(한국천주교회사)

기간: 9.2~12.16(매주 금) 19:00~21: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강사: 이찬우(다두) 신부
회비: 5만원(교재 및 간식비)
문의: 성지안내봉사회, (010)6610-6103

프란치스카눔 사도행전 성경공부 모집

기간: 8.31(수)~12.1(목) 매주 수·목
장소: 프란치스카눔
(월배수도원 뒤)
강사: 강주현(사도요한) 신부
문의: (070)4266-0047 / (010)9100-4114

기초반 수화교실 개강

기간: 9.4~11.20(매주 일) 14:00~16:00
장소: 계산성당 제2교리실 / 12주
수강료: 8만원(교재비 별도)
마감: 8.28(일) / 신청: 농아선교회
254-3423 / (010)3809-0447

가톨릭근로자회관 9월 영어성경공부 모집

개강: 9.1(목) / 월 3만원(교재비 별도)

창세기: 월, 수 10:10 / 14:50 / 17:00
히브리·판관기: 화, 금 10:10
판관기·콜로새: 화, 목 19:10
집회서: 목 10:10 / (010)2578-5535

신학 및 성경과정 수강생 모집

교회론, 철학, 신구약성경, 성경입문, 음악, 전례봉사자교육, 새복음화와 윤리적 과제, 묵시문학의이해, 장자·내편, 영화로 보는 현대이상심리 / 개강: 8.30(화)
다음카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 수강생 모집

오르간·키보드성가반주법, 우쿨렐레, 통기타, 플루트, 바이올린, 오카리나, 성인생활영어회화, 텃생·유화·수채화, 천연비누·천연화장품, 동화구연·시낭송 지도자과정
문의: 476-6211(지하철 교대역)

앞산밀북카페 9월 5일(월) 개강

(월) 10:30 서양철학: 허찬욱 신부
(화) 10:30 노자의도덕경: 최성준 신부
14:30 이탈리아: R.Rivera
(수) 10:30 불어회화: 김화정 선생
(목) 10:30 불교이야기: 최동석 신부

대가대 차이나포럼 제24기 원우 모집

개강: 9.26(월) 19:00(현재 접수중)
장소: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감삼동)
내용: 석식, 명사특강, MT, 졸업여행 등
수업료: 100만원(6개월 과정)
문의: 원장 김영택, (010)9494-8169

Rex Diamond
더렉스 대구갤러리
예물, 천연보석, 다이아몬드, 순금바
(목주반지·핸드메이드 디자인 가능)
대표 임 미 순(마리아)
♥ 교동쪽 동아백화점과 시청 사이 ♥
(동아주차 무료)
☎(053)428-7989 | 010-4439-9991
교우님들께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미소인치과
원장 이 중 현(프란치스코)
송 선 희(안나)
지하철 범어역 4번 출구
전화상담 ☎(053)752-7575 **환의**
www.misoindental.com **하간진료**

(주)김스여행
스페인(산티아고) 5일도보/루르드 14일
• 출발일: 10월17일 ~ 10월30일
• 지도신부님 동행합니다.
☎ 1544-4655
대표이사 김천훈(아우구스티노)
김경숙(글로리아)

www.appleuro.com
에플비뇨기과
비뇨기과 원장 강 일(베드로)
전문의 이영국(안드레아)
전립선 클리닉(레이저수술, 암검진)
요로결석클리닉(24시간 채석)
범어네거리 애플타워 5층 TEL. 755-0888

www.baekduortho.com
백두정형외과
정형외과 전문의 배덕두 아오스딩
배상근 베드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임형준
동인 치안센터 건너편 T. 425-5919
아개 무릎 발목 관절경수술
NAVER **백두정형외과** 검색

척추 관절 중점 병원
최추석현 관장직
척척병원
WISE MAN Hospital - Spine & Joint
정형외과전문의 박 은 석(마르테오)
신경외과전문의 신 철 식(요한)
T. 053)718-7700 www.wisemanhospital.com
대구 북구 읍내동 1208-2 (철곡시장 맞은편)

성누가종합내과외과
(구.성누가의원)
위·대장내시경
건강검진센터(공단검진, 5대암)
원장 이관식(루카) · 원장 서영익(마카엘)
2로선 경대병원역 1번 출구 앞 2층
☎ 053)255-3134

www.piumclinic.co.kr
이애현 피음산부인과
부인과 검사, 갱년기 클리닉
레이저 여성 성형, 비만클리닉
보혈공단 자궁경부암검진, 요실금클리닉
상인역 2번출구 하나은행건물 7층 TEL. 053.421.7585